



산·강·바다가 품안에...
우리는 여름이 되었다

눈길 돌리면 푸른빛 한려수도
발길 옮기면 초록빛 지리산

한려수도를 두 발 아래에

해발고도 849m인 금오산은 남해안과 맞닿아 있는 산 중에서 가장 높다. 그래서일까. 한려수도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모습에 반한 등산객이 많이 찾는 산이기도 하다. 하동에서 한려수도의 매력을 가장 잘 만나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시작부터 등산이냐고, 그럴 거면 지리산에 오르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되물겠지만 아니다. 최근 금오산을 쉽게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바로 하동 플라이웨이 케이블카.

- ① 하동 금오산 집와이어를 타고 하산하는 사람들.
- ② 매암제다원 다도 프로그램.
- ③ 하동 플라이웨이 케이블카.
- ④ 스타웨이 하동에서 바라본 풍경.
- ⑤ 술상형에서 맛볼 수 있는 전어.

하동 플라이웨이 케이블카는 메인 스테이션부터 정상부까지 2.5km 길이로 이어진다. 산을 거슬러 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15분 정도에 불과하다. 오르는 내내 케이블카 유리창 너머로 하동의 바다가, 한려수도의 풍경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낸다. 저 멀리 사천과 남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치열하게 싸웠다는 역사의 현장들이 눈에 띄기도 한다.

금오산 정상부에는 더욱더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마련돼 있다. 상부 승강장 건물 옥상에는 케이블카에서 봤던 것 이상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자리한다. 케이블카의 마스크트와 액자 프레임 형태의 포토존이 있어 '인생샷' 한 장 남기기에도 좋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베이커리카페를 방문해 보자.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는 게 못내 아쉬운 이들을 위해 3.42km 길이의 집와이어 시설이 설치돼 있기도 하다. 최고 속도가 무려 시속 120km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스릴을 선사한다.

금오산 정상부를 한 바퀴 둘러보는 것도 추천한다. 하동해맞이공원을 중심으로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그동안 하동에서 볼 수 없었던, 천혜의 자연환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숲속 오솔길을 지나지만 너무 깊은 곳으로 향하지는 않는다. 탁 트인 방향으로는 지리산과 한려수도의 절경이 기다린다. 광양제철소의 웅장한 모습도 멀리서나마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지점에 전망대 겸 쉼터가 있으니 서두르지 말자. 그저 풍경을 즐기며 천천히 거닐어 보기를 바란다.

집 나간 여름 입맛, 전어로 되찾을까

예부터 여름에서 가을 사이의 밥상을 책임졌던 생선이 하나 있다. 이 생선을 굽는 밤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이야

기가 있을 정도. 기름기가 차오르며 고소한 밥새와 담백한 맛으로 수많은 미식가의 입맛을 사로잡은 생선, 전어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전어는 남해안과 서해안 인근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생선이다. 주로 삼각주 부근에서 사는데, 수심이 얇고 물살이 빠른 수역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전어의 살이 맛있게 차오르는 시기는 가을. 하동 술상형에서는 그보다 빠르게 전어를 맛볼 수 있다. 술상형의 어민들은 금어기가 끝나는 7월 중순부터 전어를 잡는다. 늦여름부터 가을까지가 전어의 제철이어서다. 전어는 가을을 전후해 살이 포동포동하게 차오르는데, 다른 생선의 3배에 달하는 지방 함유량을 자랑한다. 상당히 고소한 풍미를 선보이는 덕분에 '가을 전어는 깨가 서 말'이라는 속담이 생겨나기도 했다.

특히 이번엔 하동을 여행할 때는 술상형을 놓치지 말자. 술상형 마을 주민들이 전어 판매장을 운영한다. 갓 잡은 전어를 곧바로 손질해 내주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춘 채 손님을 맞이한다. 술상형 어부들의 어획량에 따라 매일 가격이 달라지지만, 식당이나 횡집 또는 회센터와 비교하면 저렴한 편이다. 말 그대로 산지 직송이기도 하고, 마을을 찾는 여행자들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하고 싶다는 주민들의 의지가 담겨 있기도 하다. 오로지 전어만 판매하는 이곳에서 '술상' 한 번 제대로 차려 보고 싶다면 옆 가게에서 채소와 각종 반찬류를 사 곁들여도 괜찮다.

참고로 전어를 먹는 방법은 계절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뼈가 아직 무른 여름철에는 핏감으로, 맛이 차오르는 가을에는 구이로 즐기는 게 좋다. 물론 어느 계절에나 둘다 맛보는 것이 가능하다. 여러 마리 주문해 받은 회로, 받은 구이로 맛보는 건 어떨까.

굳이 전어가 아니더라도 술상형을 찾아야 할 이유는 많다. 항구 앞 친수공간과 등대는 멋진 '인생샷'을 남길 만한 곳이다. 마을 주변을 한 바퀴 도는 산책로는 꽤 고즈넉한 분위기를 품고 있다. 산책로 끝에 설치된 전망대는 마치 그리스 산토리니를 연상케 할 정도로 이국적인 풍경을 갖고 있다. 저 멀리 수많은 섬과 하늘 위를 새하얗게 수놓은 구름 때가 마음을 한층 몽근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온몸에 퍼지는 싱그러움
지리산 깊숙이 펼쳐진 차밭
여행자 맞이하는 다원 곳곳**



**눈앞에 펼쳐진 파노라마
케이블카 타고 남해안 감상
시속 120km 집와이어 아찔**



**발 아래 만나는 절경
하늘 위를 걷는 듯한 전망대
지리산·섬진강 조화 한눈에**



**입안에 가득한 고소함
통통 살 차오른 전어 맛보며
술상형서 제대로 된 '술상'도**



약양평야, 녹차, 그리고 지리산

섬진강을 거슬러 올라가 볼 차례다. 그곳에는 하동의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화개장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떠오르는 하동의 새로운 여행지, '스타웨이 하동'이다. 그동안 최첨단 앞마당에서나 내려다볼 수 있었던 평사리 들판을 보다 더 가까워서, 더 높은 곳에서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바로 이곳이다.

스타웨이 하동은 고소성 옆에 설치된 전망대다. 스카이워크 형태로 지어져 하늘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는 게 특징이다. 이쯤처럼 별 모양으로 전망대를 만들었으며 꼭짓점마다 색다른 풍경을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뾰족한 전망대 그트머리에 서서 초록빛 들판과 지리산의 능선, 섬진강이 만들어내는 조화를 마음껏 감상해 보자. 절경이라는 표현이 절로 나올 정도로 아름답다.

평사리 들판에 직접 내려가 보는 것도 좋다. 동정호를 중심으로 생태공원이 조성돼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두꺼비 서식지로, 절경 자연을 품은 하동의 이미지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곳이다. 작은 호수 주변으로 산책로가 있다. 수국 오솔길과 황포돛대, 이른바 '천국의 계단'으로 불리는 스포티 이곳의 포토존이다. 그냥 지나치기에는 아쉽다.

지리산 자락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사방으로 차밭이 펼쳐진다. 평지나 야트막한 언덕에 드넓게 자리한 녹차밭과는 사뭇 다른, 하동의 야생 녹차 재배지다. 곳곳에 여행자를 맞이하는 다원이 있다.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매암제다원이 유명하지만, 그 외 작은 다원도 간단히 다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느 다원에 방문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놀루와 협동조합'의 '다담 in 다실'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여행자와 다원을 연결해 주는 이 프로그램은 농가에서 직접 만든 차를 맛보며 담소를 나누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스타그램 @nolluwa에서 확인해 보자.

청량감 가득한 '하동'

화개장터, 섬진강, 약양평야, 지리산, 야생 녹차밭의 이미지가 있어서일까. 경남 하동을 이야기할 때면 산이나 들만이 펼쳐진 풍경을 먼저 떠올리는 이가 많다. 그러나 남북으로 긴 지형을 품은 하동은 한려수도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남쪽으로는 남해안과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전남 광양과 여수, 동쪽으로는 경남 사천과 삼천포가 이어진다. 이 아름다운 절경을 한 번쯤 만나야 하동 여행을 시작했다는 실감이 나지 않겠는가. 화개장터 대신 금오산에 오르는 것으로 하동 여행을 떠나 보자.

필자 김정훈은 여행작가이자 콘텐츠 크리에이터다. 주로 여행 카테고리 콘텐츠 기획·제작하고 있다. 국내외 여행 매체 등과 함께 다채로운 여행 콘텐츠를 선보인다.